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3. 2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다량의 폭발물 구매 및 테러 선동 혐의자 유죄 인정
 - 3.20 현지언론은 「모하메드 압둘라」가 독일에서 8,000여개의 성냥·화약·폭발물·퓨즈·리모컨 기폭장치를 다량으로 구매, 해외 테러를 지원·선동한 자신의 혐의*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보도
 - * '18.4.7 同人是 獨 윈스터市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테러(사망 3, 부상 20)를 권유하고 선동
- 네덜란드, 트램 테러 용의자에게 종신형 선고
 - 3.21 네덜란드 법원은 중부 위트레흐트市 도심의 트램 안에서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으로 테러*를 일으킨 급진 이슬람주의자 「괴크만 타느시」(38세)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발표
 - * '19.3.18 ISIS 연계 혐의로 구속·석방된 同人是 트램 안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4명을 사살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도주, 8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
- 덴마크, 테러경보 상향조치
 - 3.23 덴마크 현지매체는 IS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위협은 크게 줄었으나,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및 독일 하나우 테러사건과 같은 극우주의자들의 외로운 늑대형 테러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자국 정보기관(PET)이 테러 위협을 '2단계'에서 '3단계'로 격상시켰다고 보도
 - * 1단계(NONE) → 2단계(LIMITED) → 3단계(GENERAL) → 4단계(SIGNIFICANT) → 5단계(VERY SIGNIFICANT)

미주

- 「트럼프」, 신임 대테러센터장에 「크리스토퍼 밀러」 지명
 - 3.19 「트럼프」 美대통령은 신임 대테러센터장에 「크리스토퍼 밀러」 現 국방부 특수작전 및 대테러 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하였으며, 同名은 ROTC로 임관해 특수부대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특별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센터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

○ **美,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폭파협박 남성을 테러 위협 혐의로 체포**

- 3.20 현지언론은 경찰이 웨체스터 카운티 보건국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있는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「페드로 쉐」(남, 54)을 테러 위협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

* 웨체스터 카운티내 뉴로셀市는 유대인 밀집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내 최초로 '봉쇄구역(containment zone)'으로 지정

○ **美 극우단체, 유대인과 경찰에게 코로나19 감염 시도**

- 3.22 ABC뉴스는 인종차별 극우단체인 백인우월주의 및 新나치주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회원들에게 마켓이나 예배 장소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를 방문하여 체액과 대화를 통해 유대인과 경찰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**아프간, 코로나19 확산으로 평화합의 이행에 제동**

- 3.19 NYT는 「밀러」 아프간 주둔 美軍 사령관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美軍 및 나토 연합군에 대해 아프간 입출국을 중지시켰으며, 이러한 조치가 철군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

중동 · 아프리카

○ **말리,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으로 군인 29명 피살**

- 3.20 로이터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을 받아 말리軍 29명이 피살되었으며, 특히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북부를 장악한 이후 잦은 테러에 시달리며 많은 軍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

* 말리 · 나이지리아 · 부르키나파소軍은 사헬지역내 공격 피해로 매년 1개 대대 수준의 병력 손실 발생

英, 런던 웨스트민스터 차량돌진 테러

- '17.3.22 英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도에 자동차 바퀴 한쪽을 걸친 채 남단에서 북단까지 약 500m를 질주하며 행인을 들이받는 테러로 사망 3명, 부상 40명 발생
 - * 한국인 관광객 5명 부상(중상 1, 경상 4)
 - 테러범은 차량 돌진테러 직후, 의사당 출입구 근처에서 칼을 휘둘러 경찰 1명을 살해한 뒤 무장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
- ISIS는 同 공격의 주체가 ISIS 병사이며, “이번 작전은 국제동맹군 국가의 시민을 공격하라는 부름에 응한 것”이라고 주장
 - 하지만, 런던 경찰은 英 출생의 52세 남성 「칼리드 마수드」가 국제적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아 단독으로 실행한 범행으로 판단
- 한편, 英 국내 정보 담당기관 MI5가 同사건 발생 몇 년 전 同名을 폭력적 극단주의와의 연계혐의로 한차례 조사를 하였으나, ‘주변부 인물’로 분류해 잠재적 테러명단(약 3,000명)에 未등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
 - 정보활동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으며, 영국내 테러 위협인물만 2만여명이 넘어서면서 MI5의 인력증원 필요성도 대두

< MI5 (Military Intelligence, Section 5) >

- (정식명칭) 보안정보국(SS, Security Service)
 - * 英 3대 정보기관 : 보안정보국(SS 또는 MI5, 국내정보), 비밀정보국(SIS 또는 MI6, 해외정보), 정보통신본부(GCHQ, 통신·전기신호 감시로 정보 수집)
- (설립) 1909년 비밀첩보부(Secret Service Bureau)로 창설, 1916년 군사정보국에 편입되면서 국내 MI5와 국외 MI6로 구분
 - * 1989년 보안국법(Security Service Act)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존재 인정
- (주요임무) 테러방지, 방첩, 국가전복기도방지, 방호보안, 보안정보활동 등